

전경수 지음, 『전경수의 베트남일기』, 1993, 통나무

## 이 종 구

### 『베트남 사회주의의 쇄신과 유교문화』

이 책은 저자가 1993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베트남의 촌락에서 실시한 조사 기록이다. 관찰기록과 인상이 뒤섞인 일기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서평을 위해 내용을 우선 큰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 『문제의식』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국이 월남전의 패전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제2의 월남특수」를 말하는 환상에 대한 거부감에서 출발한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근거없이 베트남을 멸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던 기분을 버리지 않으면 한국인이 베트남에 발 붙일 수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역사적 악연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어 한국인은 베트남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베트남 특수와 경제발전을 직결시켜 참전을 합리화해 온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이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전쟁 보상을 요구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시민적 차원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해원국이 필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해원을 하려면 한국 내부에서 월남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거쳐 베트남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아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군 실종자의 문제부터 정식으로 제기하여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는 일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의 주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베트남에 대한 연구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975년에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이 된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도이머이(쇄신)를 추진하며 시장경제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실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동양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베트남을 동남아 이전에 유교문화권으로 보아야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인의 존재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를 위해서만 존재의미가 있는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국가라는 존재의 구성을 위한 사회주의적 사상은 충분히 존재이유가 있다. 반면에 공을 중시하는 유교 이념에 뿌리를 가진 노동윤리와 인내라는 덕목은 사적이윤의 추구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화와 부합되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가족

공동체와 국가의 조직 원리가 더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 지금의 베트남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합하는 논리를 새롭게 찾아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 『방법』

사실상 한국인 사회과학자가 수행한 최초의 베트남 연구성과인 이 작업은 촌락의 생활과정에 대한 미시적 참여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접합 가능성이라는 거시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층 조사에 필요한 친화감 형성의 수준을 넘어 주민과 연대를 이루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은 그 자체가 사회조사의 교본이다. 자료 제공 과정을 통해 공산당과 행정조직의 위상이 파악될 수 있었다.

### 『문화구조』

남북의 베트남이 하나의 단위로 통합 된 역사가 약 삼백년 정도이다. 유교적인 정치 세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한 비에트족이 느슨한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던 힌두교의 영향이 강한 남쪽의 참파전통을 삼킨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베트남과 한국은 유교적인 중국문화의 주변부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북베트남에서는 유학생 교류를 통해 소련과 동구의 영향이 농촌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생일케익과 같은 모델이 필요하다. 기층에서부터 보면 「전통문화」 「중국」 「불란서」 「소련」 「미국」의 순으로 켜가 쌓여 있다. 약 80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자언어를 불란서식으로 알파벳화하여 사고 방식을 서구화시킨 불란서의 영향은 심각하다.

### 『남북의 지역문제』

전통적으로 북쪽 세력의 남진에 의해 국가가 형성되어 온 베트남에서는 남북간의 지역감정이 뿌리깊게 남아 있다. 특히 1975년의 통일 이후 더욱 악화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한 거론 자체가 금기로 되어 있다. 베트남정부가 남쪽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선별적 지역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하노이의 근교 농촌에서는 메콩델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연구자가 훨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으며 자료에 대한 접근도 용이했다. 필자는 북과 남의 이러한 차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북이 남을 점령하였으나 사회경제적으로는 남이 과거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자본주의와의 재결합이 비교적 용이한 남베트남이 도이며 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의 중심인 북부와 경제의 중심인 남부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975년의 통일 이후 정치적 권력은 북베트

남 출신의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도이머이가 가장 진전된 호지명(사이공)시에서 본 남베트남 사회상 가운데는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무질서가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억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 심각한 불신과 부패가 팽배해 있는 것이 베트남의 사회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최악의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잘 살아보자」는 경제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무질서의 충돌이 경제발전을 내세우는 정책에 의해 유예되고 있는 모습이다.

현실적으로 권력층은 남베트남에서 통일 이후 강제적인 개조학습에 의해 주입된 집단주의적인 공포가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방화를 계기로 하여 반정부 활동의 원동력으로 변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장경제를 앞세운 사회주의가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 『도이머이』

필자는 베트남의 전국토가 하나의 경제특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이머이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사적부문과 관리능력을 상실한 공적부문의 차이가 숨김 없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비공식부문의 팽창이 가시화되고 있다.

1986년 이후에는 개인이 새로운 수입원을 발견하면 본직장에서는 개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이는 소련·동구권의 붕괴와 같은 국제적 관계의 변화에서가 아니라 자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좀더 심층적인 분석관점이 집중되어야 도이머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공식조직이 조직원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도이머이에는 비공식부문을 공식화하여 공식부문이 자체 통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경제개방 정책의 위상이 설정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도이머이의 결과로 텔레비전에서 세계뉴스를 볼 수 있으며 한국 관계 뉴스도 큰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보아도 베트남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농촌에서도 실질적인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있다. 농촌에도 카라오케와 비데오테잎 대여점이 늘어나고 시장경제화 경향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평범한 베트남인들이 가지는 인생의 꿈은 취직, 결혼, 내집 마련이다. 이는 도이머이가 주택난 등 심각한 전형적인 발전도상국형 도시문제를 유발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촌락사회』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으므로 개인은 코페라티브와 1년 단위로 이용권을 경신한다. 코페라티브와 개별 가정의 관계가 계약제로 전환되어 어린이 노동력의 동원이 늘어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가족 전원이 동원되어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이 계약제 이후의 큰 변화다.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일반인들은 이용권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베트남의 마을을 지배하는 세가지 이념은 「불교」 「村堂」 「공산당」이다 (240). 베트남 사람들은 불교의 세계관에 엄청나게 심취하고 있다. 堂을 중심으로 촌락공동체가 형성되어 一村一神의 양상이 보이고 있다. 공산당은 이전의 유교를 대체한 기능적 등가물로 파악되고 있다. 족보, 문중, 제사, 등 가족제도를 유지시키는 유교적 전통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집마다 있는 조상을 모신 제단에는 호지명의 사진이 같이 걸려 있을 정도이다.

유서있는 종족촌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가문의 堂이 역사유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성씨 집단인 가족은 堂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집단이며 족외혼 집단이기도 하다. 장자 우대 불균형 상속제도이고 남아 선호가 뿌리깊다. 그러나 가족계획 정책의 실시로 홍하델타에 있는 마을의 출산율이 약 10년간에 3.1%에서 1.97%로 감소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시책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

남녀의 분리와 동시에 여성차별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어 유교식의 인간관계가 깊이 침투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공산당』

베콩델타의 마을에서 가족과 인구관계 통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당조직이 모든 실권을 막후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철저히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면모가 드러나고 있었다. 반면에 행정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료 협조를 하는 여론을 일으켜 외부의 베트남인 연구자들에게도 금기로 되어 있던 정보가 확보될 수 있었다. 이 에피소드 자체가 당시의 권력이 약화되고 인민의 참여를 장려하여 국력을 키우자는 방침이 채택되고 있는 공산당의 도이며이를 보여 주고 있다.

북베트남의 홍하델타에 있는 촌락의 사례를 보면 공산당이 과거에는 주민들의 일상 활동 모두에 관여했으나 도이며이 이후에는 마을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만 개입한다. 외국인 연구자의 행동에 대한 제약도 남부에 비해 가시적이지 않았다. 현재 공산당에서는 당원들이 다른 종류의 행정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당원이 최고 자리에 당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마을 공산당원의 연령구성을 보면 젊은이들의 가입이 저조하여 조직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이며이에는 공산당 체질의 개선과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

저자는 베트남 공산당이 도이머이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통합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자본주의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의 사례는 한반도 통일문제를 볼 때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베트남과 남북한 사이에는 끈질김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남북한에서 베트남과 같은 점진적 실험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저자는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주요 내용은 현지조사에 입각한 지역연구의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일차자료의 성격을 가진 기록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과학적 방법, 현지의 협력 확보방식, 정책적 함의, 등의 주요 요소가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평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흥미있는 현지 사정과 저자의 직관적 통찰이 제시되어 있다. 베트남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는 현지 감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미시적 참여관찰과 거시적 문제의식을 결합한 방법론은 아직 초창기에 있는 한국의 지역연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풍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자료가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날을 기대한다.

이종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Tel: 889-8508(O), 618-4353(H)